

지난 2월 제7차 선운산에서 각국 스님이 “한국 불교는 진아(眞我)나 불성이나 여래장 따위의 신비주의적 개념에 집착하면서 ‘연기’와 ‘무아’로 요약되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해 불교 내부에서 ‘진아’ 논쟁<본지 412, 413호 참조>을 일으킨 데 이어 최근 발간된 <오늘의 동양사상>(예문동양사상연구원, 반년간) 봄·여름호는 ‘윤회의 주제’ 문제를 특집(무아-윤회)으로 다뤘다.

앞서 각국 스님에 의해 촉발된 논쟁과 달리 이번 논쟁은 ‘김진’ (울산대 철학과 교수)이라는 서양철학(칸트) 전공자가 <칸트의 불교>라는 책을 통해 “‘무아’와 ‘윤회’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을 안고 있으며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칸트의 ‘요청적 사유방법론’을 끌어들이야 한다”고 포문을 연 데서 비롯됐다. 이에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철학과)는 “자기 동일적 실체가 있어야만 하나의 자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고, 김진 교수는 다시 “연기적 인과설을

불교를 하나의 건축물에 비유했을 때, 무아(無我)와 윤회는 빠질 수 없는 두 기둥이다. 붓다는 윤회를 인정하면서도 무아를 가르친 셈이다. 그러나 고정불변의 ‘나’가 없다면 누가 윤회하고, 누가 업을 짓고 받는다든 말인가? 초기불교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무아-윤회’ 문제가 최근 다시금 불붙고 있다.

다시 고개 든 ‘무아-윤회’ 논쟁

김진 교수 “두 사상 사이 모순 양립 불가능”

조성택 교수 “무아설은 수행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통해 실천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윤회적 자아 주체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무아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재반박했다.

이번 호에서 김-한 교수의 대립전을 펼친 조성택 교수(고려대 철학과), 김중욱 박사(동국대 강사), 최인숙 교수(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불교학과 서양철학을 두루 꿰고 있는 학자들. 이들은 서양철학의 ‘공격’에 대해, 그 구체적 접근 방법은 다르면서도 “무아와 윤회를 대립적으

로 설정하는 김진 교수의 불교 이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 통일을 이뤘다.

조성택 교수는 먼저 “김진 교수가 무아와 윤회가 모순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아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 잘못된 이해의 근저에는 불교 수행과의 관계를 도외시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나’가 관념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의 경험’을 통해서일 뿐”이라며 “깨

달음의 경험’으로서만 궁극적으로 논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을 두고 철학적으로 모순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는 무아와 윤회의 관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중욱 박사는 “칸트처럼 이원성에 토대를 둔 서양철학에서는 현상적 자아의 배후에 잠린 자아를 상징하고 거기에 자기 동일성적 주체성을 부여하지만 이런 방법과 내용은 비이원성을 골간으로 하는 불교의 중도적 무아설이나 무아론 회론에는 제대로 들어맞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예문동양사상연구원 인도·불교철학 연구실장 이덕진 교수(정원전문대)는 “김진 교수의 견해는 불교 역사의 깊은 한 줄기, 즉 불교를 타락종교화, 브라만니즘화하려는 의도를 끊임없이 내비치는 사람들의 주장을 역설적으로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며 “동·서양철학의 대화와 소통’이라는 점 외에 불교 내부적으로도 현재 모습에 대한 자성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질(3)

백제의 웅혼한 기상

백제 미술하면 우아함을 떠올린다. 백제의 기와나 불상에서 그러한 특징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아함에는 아담하고 온화한 이미지가 깔려 있다. 그런데 최근에 발굴이 끝난 미륵사지와 몇 년 전에 발견된 백제금동향로를 보면 우아함만으로는 백제 미술 전체를 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미륵사지에서 보이는 웅대함과 금동향로에서 보이는 섬세함은 백제미술의 스케일과 디테일에 대하여 다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미륵사는 삼국의 사찰을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큰 사찰이다. 신라 황룡사의 2배에 가까운 면적이고, 정릉사도 전체면적은 미륵사보다 넓지만 고구려 때의 사역은 그보다 작다. 평야지대인 익산에서, 우뚝 솟은 약 430m의 용화산을 배경으

로 화공주를 백제로 쫓겨나게 한다. 마동은 선화공주가 가져온 금을 보고는 자신이 마를 칸 곳에 쌓아둔 돌이 귀중한 황금이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마동은 마침내 임금에 오르게 되니 그가 바로 백제의 30대 임금인 무왕인 것이다. 무왕은 부인이 된 선화공주와 함께 사자사(獅子寺)에 가는 도중 용화산 밑의 큰 못에서 미륵삼존(彌勒三尊)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곳에 큰 절을 세우기로 하였다. 이 절은 미륵삼회(彌勒三會)를 모방하여 전과 탑과 회랑을 각각 세 곳에 세웠고 절 이름을 미륵사라 했다. 이상이 미륵사 창건에 대한 <삼국유사>의 내용이다.

설화에 나타나듯이 이 사찰은 무엇보다도 미륵삼회(龍華三會)라는 불교신앙을 건축으로 체계화했다는 데 그 의의가



◊미륵사 모형, 미륵삼회를 본 딴 삼원식 배치로 불교사상을 건축적으로 구현했다.

미륵사 금당·탑·회랑 3원식 가람 배치 고구려·신라와 다른 백제만의 공간 구성

로 하기에 더욱 그 위용이 웅장하게 느껴진다. 산에 의지하여 넓은 전망을 갖도록 하는 사찰의 배치는 우리 나라 사찰에서 가장 널리 애용되는 방식이다. 과연 이렇게 거대한 사찰을 당시 수도인 부여가 아니고 익산에 세운 까닭은 무엇인가? 수도를 부여에서 익산으로 옮기기 위한 조처라는 천도설이 가장 유력하다. 이밖에 신라를 대응하기 위해 건립했다는 주장과 전라남도 지역민을 통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웠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대규모의 프로젝트는 의외로 백제의 마동과 신라의 선화공주 사이의 국경을 넘는 사랑에서 비롯된다. 마를 캐어 파는 마동은 신라의 선화공주와 혼인하기 위해 신라에 가서 서동요를 퍼뜨려 신

있다. 발굴 결과 미륵사는 금당과 탑과 회랑을 한 세트로 3개를 배치한, 3원(院)식 배치임이 밝혀져 <삼국유사>의 기록을 그대로 입증했다. 가운데 중원은 좌우의 서원과 동원과 크기와 재료로써 구분하였다. 즉 중원의 금당은 2층, 서원과 동원의 금당은 1층 건물이며, 중원의 탑은 목탑, 서원과 동원은 석탑을 세웠다. 이러한 위계적인 구분 속에 중원은 회랑으로 둘러싸고 동원과 서원은 뒤에 위치한 강당의 공간과 연결시킴으로써 위계적 구분과 더불어 연결의 조화를 꾀하였다. 3원의 짜임새는 1원 안에 1탑 3금당을 세운 고구려나 신라의 배치와는 다른, 백제만의 독특한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원강 반가사유상은 수행자상”

고혜련 박사, 미술사학회 발표회서 주장

반가사유상(半伽思惟像)은 ‘수행자상(像)’이라는 주장이 한 조각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최근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학위(중국미술사)를 받고 귀국한



◊금동미륵보살반가상.

고혜련 박사는 3월 22일 열린 한국미술사학회 제133회 월례연구발표회에서 “중국 원강(雲崗)석굴(5세기 후반)의 미륵교각(交脚, 다리를 교차시킨 자세)상은 <미륵상생경>에 의해 조성됐으며, 주불인 미륵교각불 양옆에서 있는 반가사유상은 수행자상이다”고 주장했다.

반가사유상은 부처님의 태자시절 상이거나 미륵보살상이라는 계학계의 통설. 그러나 고 박사는 <미륵상생경>의 ‘만일 비구나 일체대중 가운데 미륵의 제자가 되려 하는 이는 도솔천의 즐거움을 생각(思惟)하라’는 구절과 부처님께서 우팔리에 ‘필경 한명의 천인(天人)이나 한 송이 연꽃이라도 보게 될 것이

문명대 교수 “재가자가 협시된다는 것 상식 밖”

다”고 설한 부분을 바탕으로 통설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진 토론에서는 반론이 거셴다. 문명대 교수(동국대 미술학과)는 “미륵교각불 옆의 반가사유상은 같은 미륵불이거나 미륵의 협시보살이라는 계학계의 통설”이라며 “보살이 아닌 재가 수행자가 협시가 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외국의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는 불교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혜 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과 해운 스님(중앙승가대 강사이자 일본 다이쇼(大正)대학에서 나란히 박사학위를 받았다. 다이쇼대학은 도쿄(東京)대, 고마자와(駒澤)대학 등과 더불어 일본에서 불교학 연구가 가장 활발한 대학 가운데 하나로 <광월불교대사전>이란 명저를 남긴 모치즈키 신교(月信)가 있던 곳이다.

법혜 스님



‘돈황본 <능엄경>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법혜 스님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에 산질(散帙)로만 전하는 돈황본 <능엄경>(전10권)을 처음으로 원본의 형태로 복원

해냈다. 이를 통해 인도찬술설과 중국찬술설이 대립하고 있는 <능엄경>이 중국에서 찬술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혜 스님은 “현존하는 <대정진수대장경>과 고려본, 송·원·명본과는 달리 가장 오래된 돈황본 <능엄경>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번역했다는 ‘역자(譯者)’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며 “역자가 없다는 사실은 종래의 주석가들은 물론 중국찬술설을 주장한 최근의 학자들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해운 스님



해운 스님은 중국 선종의 오가칠종(五家七宗) 가운데 법안종의 3조인 ‘영명연수(永明延壽)의 선 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수 스님의 대표적 저술인 <종경록(宗鏡錄)>(전100권)의 분석을 통해 보리달마, 승찬, 마조 등 역대 조사들의 사상을 재조명한 게 흥미롭다. 해운 스님은 “일종의 백과사전적인 <종경록>에는 현재 전하지 않는 문헌이나 문구 등의 인용이 많아 새로운 사실 규명에 중요한 자료”라며 “<종경록> 분석을 통해 맞다, 아니다를 두고 말이 많았던 <신심명(信心銘)>이 중국 선종의 3조인 승찬의 저술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혜·해운 스님 日서 박사학위

돈황본능엄경 10권 원본형태 복원 종경록 분석 역대조사사상 재조명

해냈다. 이를 통해 인도찬술설과 중국찬술설이 대립하고 있는 <능엄경>이 중국에서 찬술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혜 스님은 “현존하는 <대정진수대장경>과 고려본, 송·원·명본과는 달리 가장 오래된 돈황본 <능엄경>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번역했다는 ‘역자(譯者)’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며 “역자가 없다는 사실은 종래의 주석가들은 물론 중국찬술설을 주장한 최근의 학자들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불교문화상품의 대표주자 마하몰

절에서나 집에서나 인터넷과 전화로 불축용품 준비하세요! 주문전화 02)732-1520

국민은행 023537-04-000359 · 농협 053-01-254668 예금주 : (주)지도리

● 지면에 광고된 상품과 더 많은 상품을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불교문화상품 문의 전화 : 02)732-1520

<p>부처님 오신날</p> <p>부처님 마음으로 인류평화 성취를</p> <p>부처님 마음으로 인류평화 성취를</p> <p>우리도 부처님같이</p> <p>연등축제</p> <p>불축 현수막 : 90cm×7m(45,000원), 6m(50,000원), 10m(60,000원), 12m(70,000원) * 주문시 사철명 기재 요망</p> <p>어깨띠 : 2,500원 100매 이상 제작시 사철명 넣어드립니다.</p> <p>불축 자랑 스티커 300원</p>	<p>세로 현수막</p> <p>장영 편(만장기) 90cm×210cm 장당 40,000원</p> <p>20cm×30cm 4,000원</p> <p>아동용 선풍기 3,000원 / 성인용 선풍기 3,000원</p> <p>방형 타이슬링 2,000원 2개 1set 지름 : 7.5cm</p> <p>캐릭터 풍선 세트 30,000원 100개 1set(대용 포함)</p> <p>캐릭터 부채 세트 7,000원 10개 1set * 50개 이상 주문시 사철명 인쇄 가능</p>	<p>8,000원</p> <p>13,000원</p> <p>보온·보냉 머그컵 보온 : 시간 / 보냉 : 6시간</p> <p>연꽃타올 4,000원</p> <p>100장 이상 주문시 사철명 넣어드립니다.</p> <p>지하철현수막(1인) 40,000원</p> <p>불축 타이슬링 5,600원 8개 1set 지름 : 5.5cm</p> <p>연꽃 저검이 세트 7,000원</p> <p>불교, 법륜기 12,000원</p> <p>불축 버튼 3,200원</p>	<p>A</p> <p>B</p> <p>캐릭터 알지마 A형: 4,500원 / B형: 4,000원 300장 이상 주문시 사철명 넣어드립니다.</p> <p>봉축 타이슬링 5,600원 8개 1set 지름 : 5.5cm</p> <p>연꽃 저검이 세트 7,000원</p> <p>불교, 법륜기 12,000원</p> <p>불축 버튼 3,200원</p>	<p>(1) 공단등 (대, 중, 소) 대 7,000원 중 4,000원 소 3,000원 (지름 : 15cm, 18cm, 23cm) 색상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흰색(영어)</p> <p>(2) 만월등 1,500원 (사이즈 : 32cm × 32cm) 1Box : 100개 색상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흰색(영어)</p> <p>(3) 종 등 1,800원 (사이즈 : 40cm × 27cm) 색상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p> <p>캐릭터 비닐 만월등 2,000원 1Box : 200개 색상 : 분홍, 피망, 빨강, 노랑, 초록</p> <p>가경용 향로 32,000원 가경용 촛대 30,000원 (보통형 : 601) 가경용 촛대 30,000원 (보통형 : 603)</p>
---	---	--	--	---